참 안식의 4단계

(마12:9-21)

9.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참 안식의 4단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복음이 우리 것이 될 때 나타나는 일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구원이라는 말도 이 안식이라는 말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된다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전파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복음이 나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적용될 때에 나타나는 일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인지 안 받아들인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논쟁에서 이 유대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에까지 이르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방에 심판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는 말씀은 구원받음이 무엇이며, 구원받지 못함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은 것이냐, 어떤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 받아 멸망할 것이냐를 확연하게 구분 짓게 해주신다는 건데 그 내용이 바로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심판을 알게 하신다, 이것은 안식을 알게 하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내게 적용이 되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안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면 아직도 심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심판이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하여 엄격히 말하면 어제의 말씀하신 것과 포함해서 안식을 네 단계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이란 집중을 말합니다.
집중의 단계가 처음에 옵니다.
그 집중의 단계는 하나님께만 내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진행되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끝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일을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켰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비슷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시골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나는 서울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또 때때로 도회지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구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기도 하고, 부모님은 농사지어서 얻게 된 쌀을 보내시기도 하고 장을 담가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계는 있습니다만 부모님께만 집중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도회지의 삶을 전폐하고 부모님께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일이 명절에 부모님께로 가서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함과 같이 하나님께만 근거해서 평강을 얻는 것, 하나님께만 이유를 둔 기쁨을 갖는 것, 하나님만이 내 만족의 이유가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안식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단계로 집중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다룬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 다윗이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 그러므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먹게 됨으로 법을 어긴 게 아니다, 또 안식일이지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평소의 두 배의 노동을 하지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참 뜻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안식의 첫 단계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으로서만 기쁠 수 있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배부른 만족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에게만 근거된 평강, 다시 말해 이 땅에 근거된 평강이 아닌 하나님께만 근거된 평강이 이 집중의 단계에서 확인되는 단계라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식이 주어지지 않은 거지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나타나는 동화(同化)의 단계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만 다 쏟아져서 집중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상태가 내 마음에 옮겨와서 내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한 것 중에 호세아서 6장 6절의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알았더라면…'이 있습니다.
이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참 안식의 상태는 그렇게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시면서 긍휼히 여길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따로 분산되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으로만 기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께만 근거를 둔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올무를 놓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을 행하는 게 옳다', 이 선(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장애인들을 보면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과 동화돼서 나오는 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선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동화의 단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서재에 있다가 나와 보면 집사람과 아이가 아주 다정하게 소파에 앉아서 TV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 책을 들고 넘겨가면서 들려지는 대로 듣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꼭 자기 책을 접고 구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걔는 TV를 보지 않아요, 엄마 얼굴을 봅니다.

어느 때 보는가 하면 드라마에 슬픈 장면이 나오면서 TV 속의 배우들이 막 웁니다, 이때 지 엄마가 꼭 울어요,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절대 TV를 보지 않고 듣고 있다가 슬픈 장면이 나오고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지 엄마를 보면서 웃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는데 얘는 웃어요.
왜 이렇게 둘의 차이가 생길까요?
엄마는 드라마에 집중합니다, 집중할 때에 그 TV 속의 배우와 동화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책을 읽으면서 귀로 드라마를 듣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엄마는 동화돼서 울고 있는데 그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웃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지요, 마음이 하나님께 다 가지 않지요?
이럴 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내 상태를 보시면서 웃으실 때 나는 울고, 하나님께서 우실 때 나는 웃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동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측면에서 사물과 상태를 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이 세상에서 마음이 조금 뜨려고 합니다, 세상에 안정되게 배붙이던 상태에서 뜨려고 그럴 때, 나는 울고 근심하며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웃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업이 잘된다고 나는 웃습니다, 하나님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에 빠져 죽을까봐.
돈에 빠져 심령이 썩을까봐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코드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며 드라마를 듣고 있는 아이, 분산되지요?
이때 엄마는 집중돼서 울고 있을 때, 우는 엄마를 보고 웃는 아이처럼…
그러면 엄마가 아주 힘들어해요.
마음대로 울고 싶은데 얘가 보고 자꾸 웃으니까 감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우리는 웃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감정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흐름입니다.
집중했습니다,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동화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코드가 같아질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하여 이 세상 안으로 흘러들어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이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마태가 기록한 것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단순히 바리새인과의 논쟁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은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컸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까는 이야기이고, 그 오해가 짙게 깔려진 안식일에 대한 잘못되 이해의 배경 위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바르게 계시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손 마른 사람을 마태가 지금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안식과 관계 지어서.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피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근육이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손은 달려있으나 근육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손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상실된 것입니다.
요즘은 기계로 많이 합니다만 그 옛날에는 손으로 다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손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손대면서 진행이 됩니다.
마태가 이 상태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끌어온 거예요.
피가 흐르지 않아서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운의 흐름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기운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뜻이 흘러들어 와서 마치 이 손의 피가 원활히 흐르고 근육이 힘을 받아 이 손으로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야 될 우리의 상태가 손 마른 사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흐름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하늘의 흐름이 막혔고, 하늘의 뜻이 막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마음의 손을 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수능시험이에요, 마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거죠.
자식 기를 때 마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사업할 때 마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에서 그 흐름이 막혀버리고 있음을 마태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하늘의 흐름이 흘러들어 와서 내가 삶에서 접해야 되는 모든 일에 그 하늘의 흐름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식이라는 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과 동화의 단계를 합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새 계속 신문에 나옵니다.
SK 그룹에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러 저러한 기사가 있는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SK 그룹의 회장님께서 회사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자문을 구하는 전문 무속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무속인에게 일을 묻고 해도 재벌그룹이 되지 않느냐?'
원래 그분이 원불교 교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원불교라는 게 원래 불교교인들이 어느 정도나 손을 대지요.
불상 앞에 절하는 것도 사실은 불교인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게 다 무속이지요.
원래 석가모니가 가르친 철학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건희 씨도 원불교예요.

자, 무속인에게 중대사를 결정하게 하고 일을 진행해 왔는데 SK 재벌그룹이 됩니다.
이게 하늘의 뜻입니까?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도 잘되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럴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무당에게 물어보고 정책을 세우고 가도 되도록 내버려 둬서 돈 잘 벌게 하는 그런 일이 돈이라는 겁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돈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울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돈을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는 울고 있는 거죠.
하늘의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흐름이.
돈 많이 번다고 하늘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사업에 손을 대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어떤 형태인지 모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거쳐서 하늘의 흐름이 있으면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평강한 가운데 사업이 안 되는 상태를 맞이하고, 사업이 안 됨을 통하여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얻고 아내가 고통을 받고 하는 가운데에 온갖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자식들의 인생관이 바로 설 수도 있고,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유익한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 어떻게 돼야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늘의 흐름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고 합니다.
안식의 마지막 단계, 나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안식이 크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안식이 무엇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식은 무엇을 안 하는 것, 내 몸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는 행동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내 뜻이 있을 때 내 뜻을 세상에서 이루어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게 안식이고, 내 소원이 있을 때 내 소원을 이 세상에서 성취하여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게 안식이고, 주어진 일을 잘해서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의 흐름이 콸콸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마땅히 자기를 어필

하시고 나타내셔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다 하시면서도 늘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려 하시고 오직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아내에게도 돈 잘 버는 남편으로 자식에게도 능력 있는 아빠로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안정된 생활권에 들어간 사람으로 비추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러한 모든 행동의 동기가 다 하늘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마치 변기통에 양말이 들어가서 변기통이 막히는 것처럼, 하수구에 참외껍질이 들어가면서 막히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내 뜻을 나타내고 내 소원을 나타내고, 내 바람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하기 위해 행동하고, 그렇게 쓰는 마음이 다 하늘이 흘러들어오는 관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혈관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처럼 그래서 혈관이 막히고 손이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모든 흐름을 막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일에 내 마음을 투자해서 나를 나타내려 할 때 마음이 나를 떠받치는 데에 쓰일 때, 그 마음이 하늘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콜레스테롤이 돼버립니다.
마음을 세상에 쓰지요?
그러면 그 마음을 쓰는 모든 일에 하늘의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내 자식에게 내가 내 마음을 쓰지요?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내 자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생기는 마음과 내가 동화되고, 하나님과 동화되면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 혹시 잘 되었을 때, 거기에 또 내가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아이에게도 이 아이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사람들은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고 찾을 때 완전히 숨어버리라는 얘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하버드대학이라도 들어가면 꼭 책을 씁니다.
'나는 어떻게 내 아이를 하버드대학에 입학시켰는가?'

그걸 자기가 한 겁니까?
그 법칙대로 책에 쓴 대로 하면 다 됩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숨어버리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었어요, 그러면 또 책 쓰라고 잡지사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또 잘난 척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사업이 잘됐다'고…
아주 가지가지 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이 네 가지 단계, 집중의 단계, 동화의 단계, 흐름의 단계, 감춤의 단계, 이 네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네 단계를 이뤄서 안식을 내 것으로 하겠습니까?
오직 복음이 적용되는 그 결과로 안식의 네 단계가 이루어지겠지만 나는 네 단계 중 어느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단지 여러분은 마음의 눈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몸과 연합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이 죄악 됨이 죄악인 줄 알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이 '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만 하고 있노라 보면, 마음은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화될 것이고, 십자가를 보고 있는 동안에 동화된 마음으로부터 하늘이 흘러들어올 것이고, 십자가를 보고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고 십자가 뒤에 감춰지기를 원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네 단계가 끊임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반복되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것으로 될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내가 같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마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있는 동안에 무슨 상황이 주어지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든지, 누구와 관계하든지 이 안식의 네 단계가 반복되며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이루신 복음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해 주어질 하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 참 안식의 네 단계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 년 365일 계속 반복되는 안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